

“한일, 제로섬 아닌 윈윈...반일로 정치적 이득”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 수십 차례 반성·사과”
정상화 고민...전임정부 직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있다”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해왔다면서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전임 정부’라고 직접 거론하면서 “수령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작금



의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대일본 ‘굴종 외교’라고 맹비판하는 야권을 직격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담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결립

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으로 한미일 및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켓과 태극기 붙은 운영위 여야 의원석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함께 합시다’ 피켓을, 더불어민주당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태극기를 각각 의원석에 부착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의결 국힘 퇴장 반발...31일 개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의 후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의 의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저녁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강행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 표결과 관련, “(저녁 8시 회의)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차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권력이 개입해 한 사람을 농락한 것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반대를 두고서는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신 을사조약 대일 굴욕외교...국정조사 검토”

박홍근 “주 69시간제, 즉각 폐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

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선포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날날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그리고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 을사조약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든가 아니겠느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건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직장인 태반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데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탁상행정이자 고단한 국민 일상에 대한 개악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즉각 폐기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TK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통과

빠르면 이달 안 본회의 상정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했다.

신공항특별법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러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큰 산을 넘었다”며 “시·도민의 염원과 모두의 뜻이 잘 담겨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부처 간의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